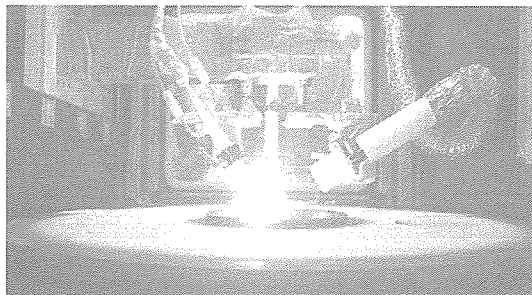


국내 유일의 광관련 제조장비 업체로 기술력 인정받아

광통신용 광섬유/광소자 제조 장비 생산 전문기업 경기도 시화공단 시화유통상가 근처에 유난히 빛이 나는 회사가 있다. 외부에서 볼 때도 그러하였지만 막상 회사 내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고보니 참으로 알찬 기업이라는 생각이 든다. (주)세미텔(대표 이병문 www.semitel.co.kr)은 반도체용 장비 및 광통신용 광섬유/광소자 제조 장비를 생산하는 전문기업이다.

1995년 시화공단에 위치한 아파트형 공장에서 반도체 공정용 부대장비 제작업체로 시작된 세미텔은 설립(구 진성 엔지니어링) 후 1998년 법인 전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국내 유일의 광통신용 광섬유 및 광소자 전문 제조 장비업체로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우량기술기



업, INNO-BIZ 기업, 유망중소기업, 유망선진기술기업, KT MARK 인증, ISO9001 인증 등 수 많은 인증과 자격을 획득하였으며 지난해에는 대표이사인 이병문 사장이 신지식인으로 선정되고 지난 9월에는 2002년 기술혁신대전에서 국무총리상 수상의 영예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세미텔은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를 5% 이상 투자하여 신제품이나 신공정을 개발하고 있으며 정부 출연과제도 다수 수행 완료하였고 또한 수행중에 있다.

세미텔의 주력 제품은 광섬유 모재제조장비

세미텔의 주력 제품인 광섬유 모재제조장비는 개선 증착공정(MCVD)용 광섬유 장비로 1990년대 후반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하였고, 이후 양산화에 성공하여 국내 대기업의 제품생산에 투입되고 있으며 장비의 성능이 기존 외산 제품에 비하여 우수하며, 특히 가격면에서의 장점을 인정받아 지속적인 납품 주문을 받아 왔다.

특히, 세미텔은 장비의 설계 기술에서부터 장비를 활용하여 양산할 수 있는 공정 엔지니어까지 갖추고 있어 신규업체에 대한 기술 지도가 가능하다는 것이 타 업체에서 쉽게 따라 올 수 없는 장점이다. 세미텔의 장비가 특히 사용자에게 호감을 끄는 이유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고, 사용자에게 친숙한 인터페이스를 적용하여 장비 사용이 보다 수월하며, 주변 장비와 연동되어 일괄 제어가 가능한 점 등 사용자의 편리를 우선으로 생각하여 설계 되었다는 점이다. MCVD 광섬유 제조 장비와 더불어 광섬유의 생산성을 증가하고 제조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신규공정 및 장비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세미텔 이병문 사장은 “세미텔의 경쟁상대는 세계

입니다. 세미텔은 광섬유를 만드는 모든 장비를 제조할 수 있는 세계 유일, 최고의 회사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또한, 평판형 광소자(PLC)를 제조하는 장비인 FHD(Flame Hydrolysis Deposition) System 역시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하여, 국내 대기업과 벤처, KETI 등 다수 업체에 공급하여왔다. 이 장비를 사용하여 PLC Type의 OADM, AWG, Splitter 등의 다양한 소자의 제조가 가능하며, VOA나 Switch 등의 제조도 가능하다. 특히 세미텔은 KETI의 임영민 박사 팀과 공동으로 이 장비를 활용한 「전압 가변형 가변 광감쇠기」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과제 진행중 노하우를 장비에 접목하여 보다 양산성이 높은 장비의 개발을 완료하였다.

세미텔의 광사업 부문 이외에 반도체 및 LCD 장비 부분은 현재 Wet station류를 개발하여 국내외 반도체 제조업체에 판매 중이며 COG Bonder 등 신제품을 개발하여 LCD 제조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미텔의 장비사업 분야는 초정밀, 초고순도 GAS 및 CHEMICAL 관련 첨단제품만을 취급하고 있어 경쟁업체로부터 때로는 도전도 받지만 장벽이 높아 아무나 참여할 수 없다.

광응용품 분야는 회사의 전략산업분야로 심혈을 기울여

장비사업부문에 현재 세미텔이 개발 중에 있는 광응용품 분야는 회사의 전략산업분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이다.

“연구원도 사람이라 쉬어야 하기 때문에 하루 18시간 불을 밝힌다. 미래는 단순한 장비만 공급하는 업체는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비를 이용하여 양산제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기술까지 판매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응용품 사업은 부단한 시장 수요 조사



를 통하여 제품을 선정 개발할 계획입니다”라는 세미텔의 기술연구소 권오덕 소장은 장비 분야외에 광섬유를 이용한 교량, 댐, 터널 등의 안전감시 시스템과 광통신용 제품의 연구와 생산시 보다 간편하고 저렴하게 광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광특성측정시스템의 개발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시장 조사와 수요 조사를 거쳐 선정된 광섬유 센서 시스템은 국내 관련업계의 지대한 관심을 끌며 우선 공급업체 지정을 원하고 있으나 독립적인 마케팅을 위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광특성측정시스템 역시 수요조사와 시장조사의 결과로 선정되어 중소기업청 기술혁신 지원과제로 진행되고 있다.

첨단 장비 업체 이면서 「꼭 필요한 곳에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독특한 사훈을 갖고 있는 세미텔은 고객과의 상생하는 관계가 회사를 이끄는 힘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취재 / 기획홍보팀 윤희진〉

